



**李 泰 炯**  
 <천문우주기획 대표>

밤하늘 별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또한 학창시절 사랑의 감정을 별을 통해 전해 보지 않은 사람 또한 거의 없으리라. 우리네들 삶이 젊은 시절 그렇게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면서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단지 아득한 옛날의 향수 정도로만 느끼게 된다.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주의 신비에 빠져 보는 것은 단지 사춘기 소년, 소녀들만의 낭만은 아닐 진대.

밤하늘의 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웬지 모를

소리는 있지만 이야기는 줄어 들었다. 이제 도시의 밤은 더 이상 꿈과 소망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아름다움의 절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다. 혹자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 작은 빛들로 이루어진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한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낮시간에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동이 밤별들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밤하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별들을 특별한 의미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길들이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장미를 길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다. 밤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별들의 이름과 별자리를 알아두는 것이 순서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그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별과 별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도인 성도(星圖)와 간단한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일단 별과 별자리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깊은 우주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쌍안경이나 망원경이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우주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사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사람이라면 우주의 신비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별과 별이 모여 만든 별들의 작은 집단-성단(星團), 별이 되다 말았거나 별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우주의 구름-성운(星雲),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작은 우주-은하(銀河), 하늘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의 집단이 우리 눈을 유혹한다.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도시의 빌딩 숲과 네온사인에 몰든 눈과 마음을 잠시 태고의 신비가 숨어있는 밤하늘로 옮겨 보는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과 낭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⑤7

## 별들의 하늘문화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주의 신비에 빠져 보는 것은 단지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만의 낭만은 아닐 것이다. 별들의 작은 집단인 성단(星團), 우주의 구름인 성운(星雲), 작은 우주인 은하(銀河) 등 밤하늘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한다. 태고의 신비가 숨어있는 밤하늘로 가보자**

감회에 젖게 된다. 밤이 주는 평온함은 우리를 더없이 순수하게 하고 별빛이 주는 느낌이 한없이 맑고 순수하기 때문이리라. 밤이 되면 아무리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낭만적인 감상을 느끼게 되며 어둠과 별빛이 내뿜는 신비한 힘 앞에 고개 숙이게 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반은 땅이요, 나머지 반은 하늘이다. 또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반은 낮이요, 나머지 반은 밤이다. 낮이 땅의 세상이라면 밤은 하늘의 세상이다. 땅이 어둠에 묻혀 잠든 밤 시간, 하늘엔 작은 별들이 소리없이 아름다운 빛찬치를 벌인다. 긴 시간 모두가 잠든 세상을 감싸며 언제나 변함없이....

문명이 생겨나면서 사람들 삶 속에는 밤의 문화라는 것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먼 옛날 그 문화는 목동과 농부들의 이야기 문화였으며, 신화와 전설을 만드는 문화였다. 따뜻한 모닥불, 그리고 화롯불이 있었고 하늘엔 작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던 그런 문화였다. 그 문화 속에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고 밤이 새로운 활동의 시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밤의 문화는 매우 다양해졌다. 낮시간보다 더 자극적이며 더 화려한 세계가 밤의 문화를 대신하게 되었다. 열기는 있지만 포근한 느낌은 사라졌으며